



참돔·삼치 대박?... 추자 어민 뿔났다

최근 추자해역 조업 어획물 부산 등서 기록적 위판
전라·충청·경상 등 육지 선적 어선들 짝쓸이 조업
어민들 “피해 이만저만 아니다... 생계 위협” 분통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참돔·삼치 대박’이 났지만 정작 추자 주민들은 뿔이 났다. 무차별 어획을 일삼는 육지 어선의 배만 불린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삼치 15만 마리(약 480t)가 판매됐다. 판매된 삼치 15만마리는 한 대형선망 선단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위판금액만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480t은 추자도 전

체 어민들의 1년 어획량 수준이다.

앞선 지난달 14일에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참돔 2만5000마리가 판매됐다. 이 참돔 역시 ‘개량 안강망 어선(연안까지 조업 가능)’들이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한 것으로, 약 1억5000만원에 판매됐다.

문제는 추자도 해상에서 조업하는 육지 선적 어선들이 회유성 어류뿐만 아니라 정착성 어류까지 짝쓸이,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항상일 추자어선주협회장은 “개량 안강망 등 육지 선적 어선들이 추자도 주변 무인도를 거점으로 무차별적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추자도 채낀기, 외줄낀 시 어업인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황 회장은 또 “이들 어선이 추자 연안까지 진출하면서 자망·문어통발 어구 손실 피해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추자면장 역시 “안강망 어선들이 무인도 근처까지 그물을 설치, 추자 소형어선들의 피해가 광장하다. 이들 어선은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각지에서 몰려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성이 터져나오자 제주도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에 조업금지 구역 확대를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량 안강망 어선이 폐어구를 투기하면서 해양 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업 금지 등 제한을 하고 싶지만) 현재 법률로는 제주도 본섬을 기준으로 5500m 해상에서만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사실상 추자도는 사각지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자도 주변 수역은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장 및 회유경로이기 때문에 조업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향후 해수부의 답변을 검토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2개월 새 8700만원 차... 터무니 없어”

분양전환 앞둔 임대아파트 시행사-임차인 갈등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둘러싼 주민과 시행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제주도와 도의회, JDC 등 관련기관이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지원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단지 내 민간 임대 아파트 시행사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로 힘없는 서민들은 ‘내 집 장만의 꿈’을 잃게 생겼다”며 “JDC는 누구 위해 개발사업을 하고,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제주시는 왜 수수방관하는가”라고 물었다.

비대위는 “2018년 당시 임차인들은 ‘4년 후 분양 전환 시점에는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분양할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보증금 부담 등을 감수하며 살았다”며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 전환 시기 한달 전에 일방적으로 시세보다 웃도는 과도한 감점평가로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려는 행태에

임차인들은 분개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주변 일반 분양 주택 감점평가 금액과 시행사가 고지한 분양 전환 주택 감점평가 금액 차이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평가한 전용면적 84㎡ 일반 분양 주택의 감점평가액은 4억4000만원이며, 동일 면적의 같은 층 분양 전환 주택 감점평가액은 5억2700만원으로 87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불과 2개월 사이에 8700만원이라는 감점평가액 차이를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이는 같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시행사는 애초 약속한 시세의 80~85% 분양 전환가를 이행하고, JDC와 제주도·도의회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고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자의 횡포에서 도민을 구제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애월읍에 부지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제2동물보호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이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소재 부지에 최종 설치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어음2리 마을회에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 희망 신청 이후, 사업설명회 및 선진시설 견학(마을대표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3일 어음2리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을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2019년 2월 사업 부지를 공모한 이후 지역주민 반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무산됐으나 이번 후보지 결정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려동물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 제주도는 사업비 90억원을 편성해 제2동물보호센터, 공설 동물장묘시설 등 2개 시설을 통합·신축할 계획이다. 도는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과포화 상태로 인한 안락사 등 관리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설 선물, 어떤것이 좋을까... 24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제주에서만 37건 발생”

제주 출신 중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본격 실태 조사는 3월부터 10월 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간첩 조작 사건 109건 중 34%(37건)가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제주 출신 피해자 39명 중 35명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 피해 등의 고초를 겪었으며 출소 이후에도 후유증과 사회적 냉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억대 편취 보이스포싱 수거책 구속

8명이 각 수천만원대 피해

3월 만에 1억원 이상을 가로챈 보이스포싱 수거책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 206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포싱 조직이 대출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면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 쯤 신고를 접수,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21일 오후 2시45분쯤 제주시 내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보이스포싱 조직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그랜드보청기

설날맞이모두다드림 행사!!

1/14~2/30일까지 선착순 보청기 주문고객 20만원 상당 천호식품 산삼배양근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LIFETIME 어워드 대상 4위

※ 건강보험급여제품 제외, 위 제품 소진시 10만원 상당 UV습기제거제 제공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을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의 사거리 삼거리 2층 북동쪽 바닷가 방향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와이덱스 보청기

광양사거리

화북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